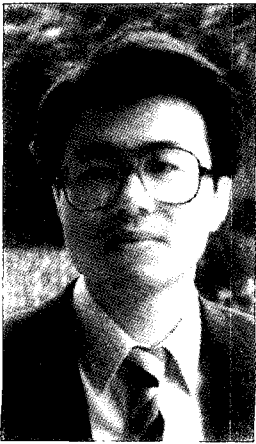


# 만들 때 쓰레기를 책임져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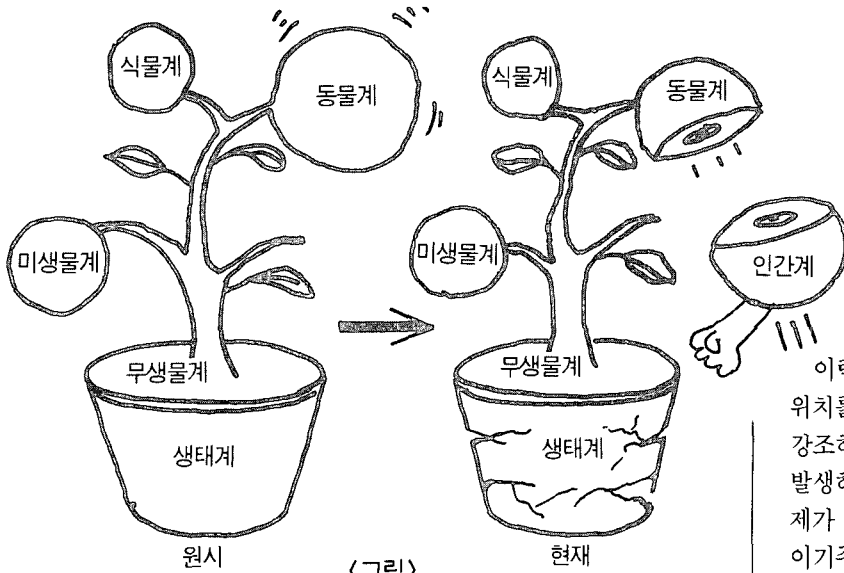
—그린벨트 內의 쓰레기장 건설을 반대한다—



장 원 / 대전대 환경공학과 교수

자연 생태계의 피라미드(圖)를 그릴 때 인간이란 동물을 그 정점에 올려 놓는다. 물질대사의 결과로 생산되는 에너지의 이용과 순환을 통해 고단위 단백질이 응축된 동물로서 고려할 때 피라미드의 꼭대기에 설 수 있는 것이 인간일 것이다. 그러나 현재의 인간은 더 이상 생태계 피라미드의 정점에도 밑바닥에도 존재할 수 없는 동물이 되고 말았다. 왜냐하면 인간은 이 자연 속에서 어떤 다른 동물과도 다르게 사물에 대한 인지와 인식에 독립적인 체계(Discontinuous System, 인간의 약삭빠른 영악성과 자기피에 넘어가는 헛똑똑이성)를 가지고 새기술 개발

이라 해가면서 다이내마이트, 핵기술과 같은 문명의 이기를 만들 요량은 했지만 그 쓰레기(문명의 부정적인 측면)를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에 대하여는 아주 게으름을 피워왔다. 불도저 하나가 만나질 움직이면 조그마한 야산 정도는 몽겨버리는 이런 시대에 인간을 생태계(Ecosystem)속의 생물적 동물계(Biological Zootop)에 넣어 두고 볼 것이냐 아니면 독립된 인간계(Discrete Humantop)로 고려할 것인가를 되새기게 된다. 이것은 철학적 인류학적 과제이기도 하지만, 오늘날의 인간은 생물적 동물이기 보다는 괴물적 문명체로 고려되는 것이 생태학적 옳은 표현일지 모른다 (그림 ).



〈그림〉

이렇게 생태계와 인간 삶의 위치를 재정립하고 생태학을 강조하는 것은 요즘 대량으로 발생하는 쓰레기와 그 처리 문제가 단지 환경 보존이나 지역 이기주의와 같은 현상적 문제 의식으로는 근본적으로 해결될 수 없는 환경문제이기 때문이다. 이미 쓰레기 문제는 때(時)를 놓쳤고 한마디로 어떠한 뾰족한 수도 보이지 않는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그린벨트에 쓰레기 처리장을 건설하겠다는 정부의 뜻만은 바꿔주기를 바란다. 왜냐하면 그린벨트에 쓰레기 처리장을 건설해도 쓰레기 처리 문제는 근본적으로 해결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가까스로 남아 있는 녹지대만 파괴될 뿐이다. 그래도 우리나라 만큼 그린벨트 사업이 성공한 나라는 이 지구상에서 찾아보기 힘들지 않는가! 이 그린벨트의 생태적 가치는 말할 것도 없지만, 사람들이 쉽게 찾아 산보할 수 있는 도시인의 휴식처로 남겨 두어야 詩라도 쓰고 노래라도 부를 것이 아닌가! 차라리 이 쓰레기를 자원으로 개발하는 기술 연구가 하루속히 이루어지길 바란다. 이 말은 곧 “똥이 자원이다”(전경수 1992)라는 인간 삶의 영위 과정에서 오로지 경제학 사고만이 강조

인간을 이 지구 생태계 속의 동물계에 포함시키는 인식 체계로는 도저히 오늘날의 자연·환경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란 단정적으로 불가능하다. 생태계 속의 한 구성원으로서 인간을 제어할 수 있는 생태계 시대는 오래전에 끝났기 때문이다. 그렇다고 환경 문제를 자연 생태계 문제로 부터 굳이 구별하고자 하는 우리의 현 의식 체계는 도저히 납득이 가지 않는다. 생활 환경이 자연 생태계를 떠나 독립된 삶의 장이라도 형성하고 있던 말인가? 환경은 자연 생태계 속에 절대적으로 의존하는 종속체가 아닌가! 그렇다면 환경 문제를 자연 생태계 문제와 구별한다는 것은 반동적 사고방식이다. 자연과 환경 문제는 언제나 발생원에서 부터 오뉴월의 산불처럼 도미노현상을 일으키기 마련, 마침내는 부메랑 현상을 일으켜 못살겠다는 몸부림과 아우성을 야기한다. 그러므로 자연보존

환경보전 등의 문제는 곧 생태계와 이 인간계가 어떻게 잘 조화할 수 있는가의 문제로 귀추되며, 이러한 생태계와 인간계의 관계를 연구하는 것도 생태학의 주요한 테마이기에 환경에 매달린 모든 분야는 이 생태학을 필수과목으로써 공부해야 함은 마땅한 일이다. 아직도 생태학 강좌 조차도 개설되어 있지 않는 대학이 수도룩하니, 남아도는 생태학 전문가도 수도룩하다. 한반도 환경 문제에는 하나같이 생태학자들의 소외가 두드러지고, 쓰레기다 오염이다 하는 등의 환경 이야기와 공청회에는 온통 환경공학자와 환경법학자들의 판이다. 이번 리오 세계환경회의에 우리 나라의 생태학자가 얼마나 참가하게 될지, 리오 장날에는 분명 많은 외국 생태학자 내지는 준생태학자들이 자기 나라의 환경생태를 대변할테니까 말이다. 한반도 생태학자들의 목소리가 더 높아지기를 기대해 본다.

되어 왔던 지금의 그릇된 사고 방식에 똥도 자원이 된다는(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환경보전에 대한 생태학적 사고의 필연성을 잘 설명해 주는 명언과 일맥상통한다. 똥은 쓰레기의 총체적인 대명사로서, 자연 생태계 속에서 저절로 그대로 썩어 분해되어 다시 똥이 되기까지 그 똥은 여러가지 모습으로 변하면서 복잡한 먹이그물(食物網, Food Web)을 거치게 된다. 이러한 생태계에너지 순환을 의미하는 이 먹이그물에서의 똥은 분명 생물적 똥(쓰레기)이어야 한다는 것이다. 그런데 요즘 세상 쓰레기라고 하면 동물적 인간이 만들어 내는 생물적 똥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우주 속 유일한 인간이 만들어내는 흉악한 사회범으로 간주되는 잘 썩지않는 쓰레기들을 의미한다. 여기에서 두 단어를 집어내어 생각해 봐야한다. “만들어낸다”와 “썩는다”이다. 즉 도올 선생의 말로 “밥 먹는다”와 “똥 누다”의 상관관계이다. 쓰레기(똥누기)문제는 우리가 만들어 내는 데 (밥 먹기)만 신경을 쓴 돈(豚)적 행동방식에서 발생한 것이다. 인간들이 만들 때에 썩을 것을 계산하고 만들어진 인조물이 있

던가? 그린벨트 속에 쓰레기장을 감추어 두는 임기응변적 정부의 쓰레기 처리 해결책은 해결책이 아니라 미봉책이다. 그린벨트 속에 만든 최고급 최신식 쓰레기장은 가까운 시일 내에 현 쓰레기장이 된다. 현 쓰레기장이 다시 재개발된다. 재개발된 현 쓰레기장은 또 현 쓰레기장이 된다. 마침내는 버려지는 큼직한 쓰레기장이란 쓰레기가 되고 만다. 또 다른 쓰레기를 만들게 된 셈이다. 이제

66

**사람들이 만들기 전에 썩는  
연구부터 하라, 만들 때  
쓰레기를 책임져라, 그렇지  
않으면 사람들이 생태적  
인간으로 돌아가거라**

59

는 국립공원에 새 쓰레기장을, 국립 공원 새 쓰레기장은 곧 현 쓰레기장이 된다. 국립공원의 현 쓰레기장은 곧 재개발된다. 재개발이 된 현 쓰레기장은 다시 내버려진 국립공원 속의 쓰레기장이란 큼직한 쓰레기를 만들어 낸다. 이제는 바다에 새 쓰레기장을, 해상 新 쓰레기장

은 곧 해상 현 쓰레기장이 된다. 해상 현 쓰레기장은 곧 재개발이 된다. 재개발이 된 현 해상 쓰레기장은 다시 내버려진 해상 쓰레기장이란 큼직한 쓰레기를 바다에 버려둔다. 이제 우주에 새 쓰레기장을 만든다. 우주쓰레기장. 우주의 새 쓰레기장은 곧 현 쓰레기장이 된다. 우주의 현 쓰레기장은 곧 재개발된다. 재개발된 현 우주 쓰레기장은 다시 내버려진 우주 쓰레기장이란 큼직한 쓰레기를 우주에 버려둔다. 이쯤되면 인간이 우주 속에서 사라질 수 밖에 없다. 인류의 종말이다. 이것은 인간이 불완전하기에 스스로 무덤을 파고 파국행의 우주선을 탈 수 밖에 없다는 논리일 수도 있다. 그러나 여기에 해결책이 없는 것이 아니다. 타타타! 쓰레기(환경보전·자연보존)에 대한 의식 구조의 변화! 자연에는 괴물적 문명체로서의 인간이 만들어 내는 쓰레기를 제외하곤 필요치 않는 무용지물이 하나도 없다. 그러므로 “사람들이 만들기 전에 썩는 연구부터 하라, 만들 때 쓰레기를 책임져라, 그렇지 않으면 사람들이 생태적 인간으로 돌아가거라”를 외치고 싶다.